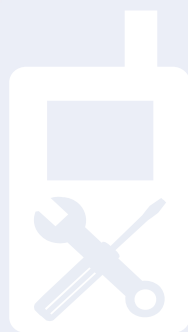


2016년 하반기 전기전자 업종 전망

◎ 관전 포인트

1. IT 수요 부진, 불활형 이익 구조
2. Apple에 울고, Apple에 웃고
3. 중국 기업들의 도전과 한계
4. 스마트폰의 초점은 '가성비'
5. 전기차, 중국에서 미국으로 성장 축 다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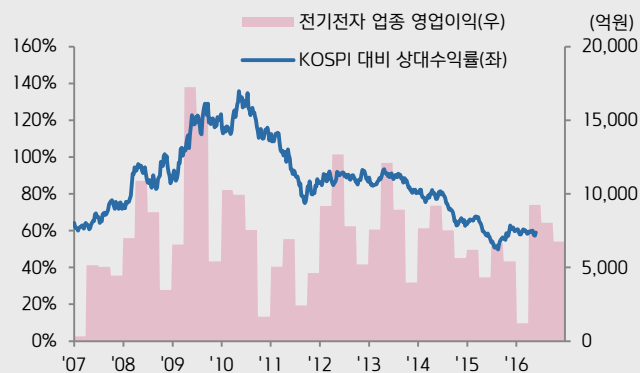
Analyst 김지산
02) 3787-4862
jis@kiwoom.com

하반기 전망 Summary

◎ 수요 부진 속 대안 찾기

- IT 수요 부진은 새로운 Device 부재, 교체 수요 자극할 혁신 둔화, 중국 Set 보급률 한계치 근접 등 구조적 측면 기인
- 선진국 전자제품 소비 비중 하향 추세
- 불황형 이익 구조: 원자재 및 원재료 가격 하락, 마케팅 비용 절감에 따른 Set 업체 수익성 개선, 매출은 정체
- 부품 업체들은 우호적 환율 여건 불구, 공급 과잉에 따른 판가 하락 영향이 더욱 큰 상황
- 상반기 아이폰 판매 부진 여파 예상보다 심각 → 하반기 아이폰 7 효과로 업황 반등 기대
- Huawei, Hisense 등 일부 중국 기업 약진, 다만 중국 업체간 경쟁력 격차 확대 및 저수익성 지속 등 한계 노출
-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략은 'Maintenance' → Flagship 모델 출시 사이클에 대응한 부품 업종 단기 매매전략 유효
- 성장 동력 부재 속 전장부품 및 전기차가 중요한 모멘텀
- 환율 여건은 여전히 우호적, IT 경쟁 환경 상 상대적 매력 유지

전기전자 업종 지수 상대수익률 추이



자료: 키움증권

전기전자/가전 업종 PBR Band



자료: 키움증권

IT 수요 부진

◎ 주요 IT Set 성장률 하락

- 1Q16 주요 IT Set 성장률: 스마트폰 4%, PC -14%, Tablet PC -21%, TV -2%
 <- 15년 스마트폰 14%, PC -12%, Tablet PC -13%, TV -4%
- 가전은 남미 수요 침체 심각(16년 -10% <- 15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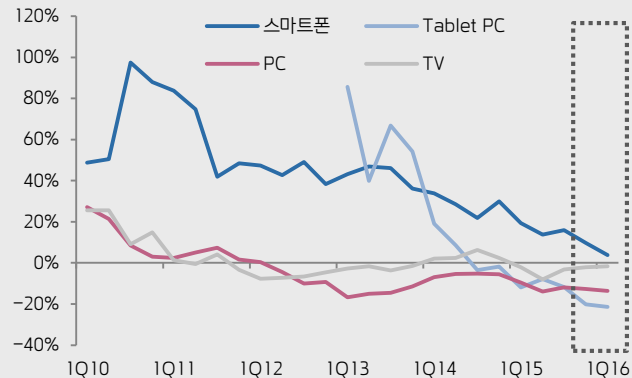
◎ 거시적 배경

- 중국, CIS, 남미 등 신흥국 경기 둔화
 <-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약세, 신흥국 통화 약세, 인플레이션, 정치적 혼돈 등

◎ 구조적 배경

- 선진국 경기 양호하나 소매 판매 중 전자제품 비중 하향 추세
 - 새로운 Device 부재, 교체 수요 자극할 혁신 둔화
- 중국 주요 Set 보급률 한계치 근접

주요 IT Set 성장률 추이



자료: Gartner, 키움증권

미국 소매 판매 중 전자제품 비중 추이



자료: 키움증권

불황형 이익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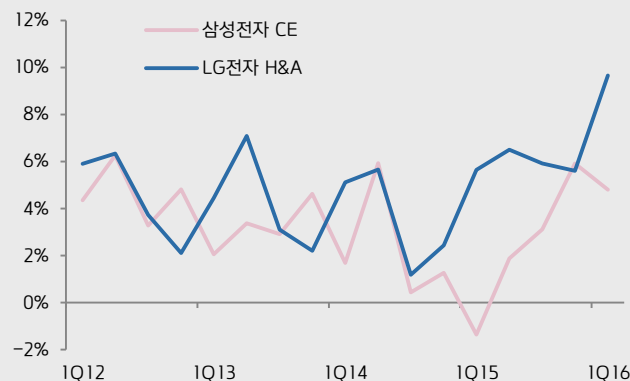
◎ Set 업체 실적 호조

- Set 수요 약세 속 원자재 가격 및 핵심 부품 가격 큰 폭 하락으로 원가 구조 개선, 매출은 정체
 - 특히 가전은 원자재 가격 하락 수혜 큰 편 <- 스틸, 레진, 구리 등 재료비 비중 30%
- TV와 가전 중심 마케팅 경쟁 자제, 수익성 보존 전략
-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원/달러 환율 상승, 수출 채산성 긍정적

◎ 부품 업체 실적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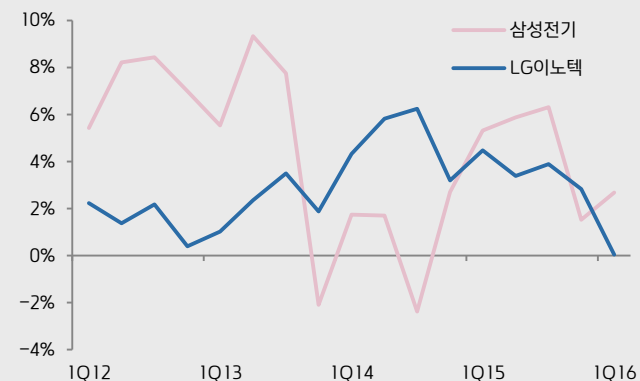
- Set 수요 부진으로 주요 부품 공급 과잉 상태
 - Apple 부진으로 부품 업체들 가동률 하락 -> 가격 협상력 약화
- Set 업체, BOM Cost 최적화에 초점
- 부품 성능 업그레이드 속도 둔화, 새로운 Trend 보급 속도 미흡 -> 성장 동력 부족
- 환율 효과로 판가 하락 영향 상쇄 어려움

주요 Set 업체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각 사

주요 부품 업체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각 사

Apple에 울고, Apple에 웃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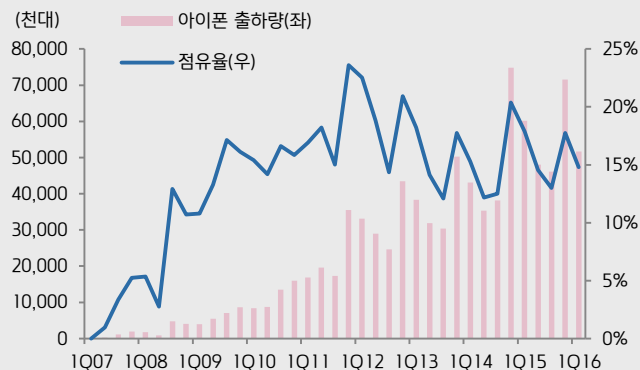
◎ Apple 성장 한계 우려

- 1Q16 매출액 13년 만에 처음 역신장, 아이폰 판매량 16%(YoY) 감소, 2분기 매출액 역신장폭 확대 예상
- 아이폰 6S 시리즈 판매 부진
 - 대화면 아이폰 6 시리즈가 조기 업그레이드 사이클 유발, 전작 대비 차별화 요인 부족
 - 중화권 매출 감소(1Q YoY -26%), 전략 시장으로서 의미 소멸
- LG이노텍(카메라모듈), Foxconn/Pegatron(EMS), Flexium(연성PCB), Largan(렌즈), Catcher(메탈 케이스) 등 Vendor 직격탄
 - 간접적으로 주요 부품 수급 상황에 악영향: 반도체, 중소형 패널, FC-CSP, MCP, LED 등

◎ 후속 아이폰에 거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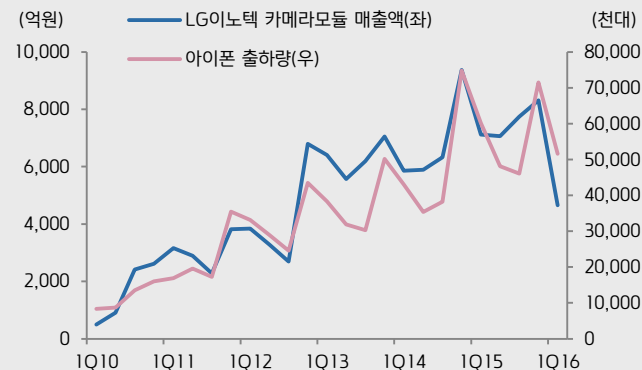
- 아이폰 7/7+ 예상 사양: 4.7"(326ppi)/5.5"(401ppi), A10 프로세서 탑재, 1,200만/듀얼 카메라 탑재, 2GB/3GB RAM, 안테나 밴드 제거, 무선충전 및 생체인식 기능 채택 가능성
- 아이폰 7 예상 판매량 상향 -> 부품 업체들 하반기 실적 회복 모멘텀 기대
- Premium 모델에 듀얼 카메라 채택
 - 일본 강진 영향으로 Sony 듀얼 카메라모듈 사업 중단 -> LG이노텍에게 초기 수혜 집중

아이폰 출하량 및 점유율 추이



자료: Gartner

아이폰 출하량과 LG이노텍 카메라모듈 매출액 추이



자료: 각 사

중국 기업들의 도전과 한계

◎ Huawei, 글로벌 스마트폰 3강 입지 확보

- 통신장비 사업 통해 축적한 특허력, 기술력, 통신사업자와 우호적 관계 등 장점이 중국 LTE 시장 급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발휘
- 듀얼 카메라, 지문인식, 3D 터치 등 Premium 기능 선제적 채택, 경쟁사 대비 합리적 가격 정책
- 자회사 HiSilicon 통해 AP 자체 조달
 - 상위 3사 AP 역량 보유: 원가 경쟁력 기여 + 설계 최적화해 디자인이나 배터리 효율, 구동 속도 등 강점 가지는 밑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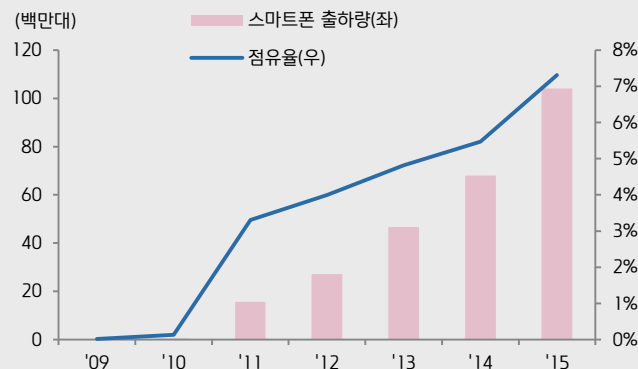
◎ Hisense, TCL 글로벌 TV 3, 4위로 부상

- 1Q16 점유율 Hisense 6.5%, TCL 6.5%로 Sony(5.0%) 제쳐
 - 해외 성과 확대: Hisense는 Sharp 멕시코 공장 인수/ TCL은 Sanyo 멕시코 공장 인수, Walmart 등 OEM 사업 병행
- 중국 상위 6개사 중국 내 점유율 77%로 정체, 중국 외 지역 점유율 8%로 상승

◎ 중국 업체간 경쟁력 격차 확대, 저수익성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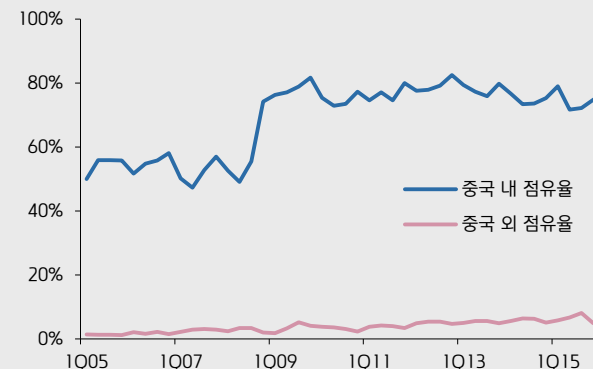
- Lenovo 침체: FY15 순이익 -1.28억달러, 6년 만에 적자 전환
 - Motorola 인수 후 스마트폰 점유율 지속 하락, 휴대폰 적자 확대, PC 시장 침체 탓
- Xiaomi, 중국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 상실 ->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주력, '만물상'
- TV 업체들, Hisense, TCL 제외 시 해외 성과 미흡, 수익성 확보 어려움

Huawei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자료: Gartner

중국 TV 6사 중국 내외 점유율 추이



자료: IHS

스마트폰, 초점은 '가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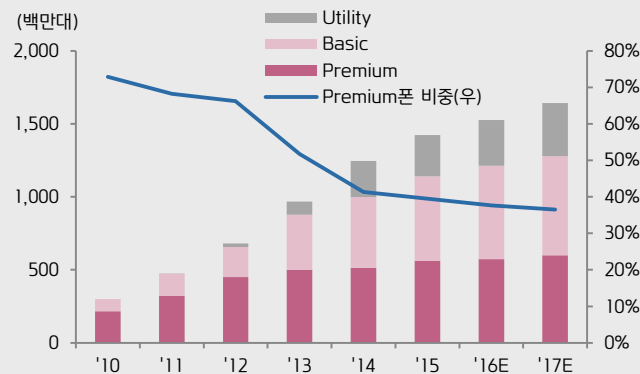
◎ 성숙기 진입, 차별화 요인 희석

- 스마트폰 시장: 15년 14억 2,400만대(YoY 14%) → 16년E 15억 5,300만대(YoY 7%)로 성숙기 진입
 - 질적 측면: Premium폰 비중 12년 66% → 16년E 36%로 축소
- 사양 평준화 및 성숙화, 글로벌 통신사 보조금 축소 → 가격에 대한 수요 민감도 확대
 - Apple 주도 디자인, 소재, 소프트웨어 기반 차별적 요인 해소
- 스마트폰 침투율 16년 79%: 북미, 서유럽, 선진아시아, 중국은 한계치 도달
- 게임의 룰 변경: 교체 수요 의존, 브랜드 충성도 제고 싸움
 - 규모의 경제 및 SCM 역량 기반 원가 경쟁 및 마케팅 경쟁 심화 예상 → 2nd Tier 입지 회복 어려워
- 업계 부가가치 하향 과정 → Form Factor 차별화 요구
- 1H16 경쟁 구도: Huawei 선전, 삼성 유지, Apple 하락

◎ 주요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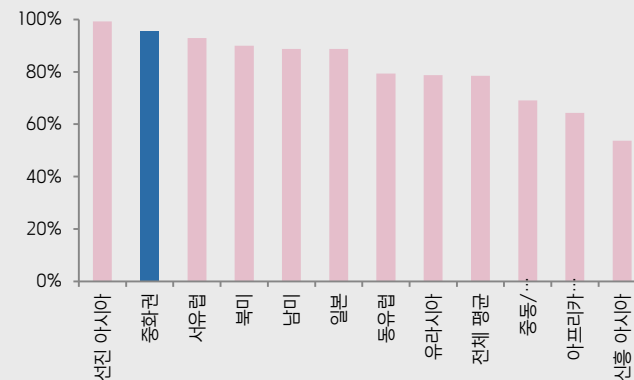
- 듀얼 카메라, 생체인식 채용
- 모바일 결제/무선충전, Flexible OLED 확대

스마트폰 시장 전망



자료: Gartner, 키움증권

지역별 스마트폰 침투율(16년)



자료: Gartner, 키움증권

듀얼 카메라, 16년 하드웨어 전략의 핵심

◎ 두께, 화질, 성능 면에서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상

- 스마트폰 카메라 다음 목표는 DSLR 대체: 화소 경쟁 한계, 두께와 공간 제약으로 경통과 렌즈도 한계 → 다른 물리적 접근 필요
- 장점: ① 보다 선명한 화질, ② 깊이 지도(Depth Map) 통해 3D 구현, ③ Auto Focus와 Zoom 신속 구동, ④ 두께를 줄여 유려한 디자인 구현, ⑤ 증강현실 등 다양한 Application 활용
- 진정한 듀얼 카메라: 이미지 합성을 위해 동일 화소 카메라 장착, AF 및 OIS 듀얼 탑재, 이미지 합성 알고리즘 뒷받침
- 고화질, 광학줌 등 개선된 기능 구현 가능 <- 실시간 이미지 합성과 Depth 정보 추출 관련 기술적 보완 필요
- Huawei P9 사례: 1,200만화소 동일 카메라 2개, RGB 센서와 Monochrome 센서 결합 솔루션
- 모노 센서 감도가 2배 이상 좋은 특성 활용, 저조도에서 밝아지고 해상도가 높아지는 장점

◎ Flagship 모델 주류적 Trend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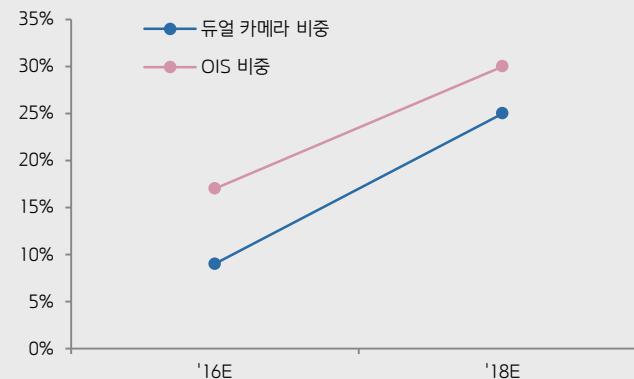
- 아이폰 7 차별화 전략 예상 <- LG전자 G5, Huawei P9 채택
- 1,000만 화소 이상 동일 화소 2개 채택할 듯
- 카메라모듈 업체 수혜 클 것: 단일 카메라에 비해 매출액 2배 이상 증가 예상 → 수량 2배, PCB, 추가 조립 공정 등 부가 매출원
- LG이노텍: LG G5 공급, 하반기 해외 전략 고객향 주도적 공급 예상
- 삼성전기: 3Q16 중화 고객향 양산, 하반기 듀얼 카메라 매출 비중 10% 이상

Huawei P9 듀얼 카메라



자료: Huawei

듀얼 카메라 채택 비중 전망



자료: 키움증권

Flexible OLED가 주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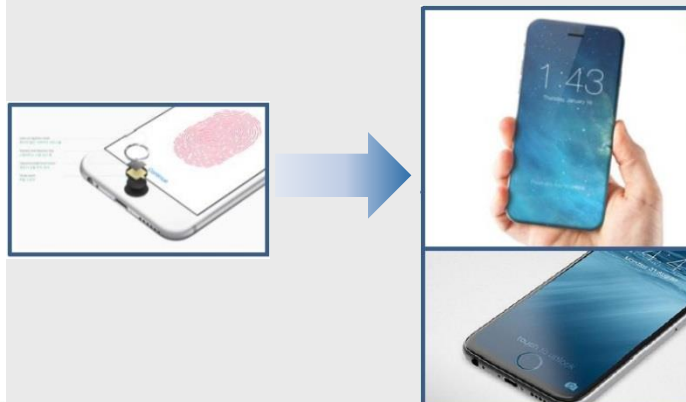
◎ 아이폰의 Flexible OLED 탑재가 현실로

- Apple이 17년부터 아이폰 Premium 모델에 Flexible OLED 탑재 시작 → 20년 전체 물량에 적용할 것으로 예측
- 디자인 차별화 목적, 1) 홈버튼 제거, 2) 베젤 최소화, 3) 배터리 용량 확대 등 추구
- 20년 아이폰 전량 탑재 가정 시 OLED 6G 설비 최소 월 15만장 필요 → Capex 20조원 육박

◎ 중소형 패널 시장 지각변동 시작

- 삼성전자에 이어 Apple이 스마트폰 Main 디스플레이로 OLED 채택
- 중소형 패널 시장 주도권 LCD에서 OLED로 급속 전환
- 휴대폰용 디스플레이 내 OLED 비중 15년 12% → 20년 30%로 확대
- 16년부터 OLED 패널 제조원가가 LTPS LCD 하회
- 1) 규모의 경제 확보, 2) 주력 생산라인 감가상각 종료에 따른 고정비 절감, 3) 소재, 부품 등 재료비 원가 하락 등에 기인
- BOE, Tianma 등 중화권 업체들도 16년부터 OLED 설비투자 단행
- OLED 장비 및 소재 업체 수혜 예상
- 장비: AP시스템, 비아트론, 에스에프에이, 원익IPS 등
- 소재: 덕산네오룩스, 원익머트리얼, SKC코오롱PI, 아이컴포넌트 등

아이폰 7S 디자인 변화 예상



삼성디스플레이 중소형 OLED Capa. 전망

Fab	Gen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A4	6G												장비 발주	+30k	30K	+30k	60K								
A3	6G																								
A2	5.5G																								
A1	4G																								

무선충전, 확장성은 프리미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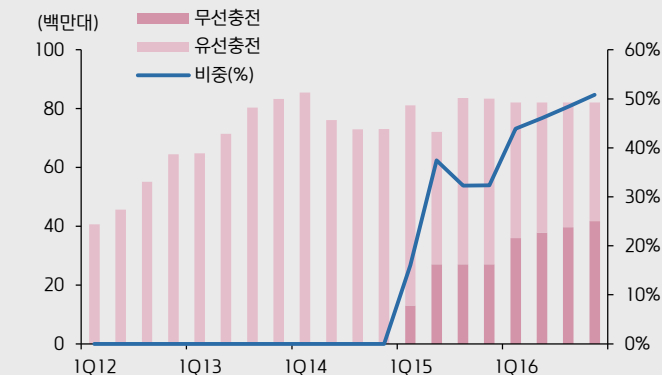
◎ 무선충전 본격 개화

- 스마트폰: 삼성전자 갤럭시 S6(15년)부터 본격 채용, Apple도 검토 중
- 스마트워치: 높은 전력 요구하지 않아 무선충전으로 유선충전의 효율성과 안정성 구현, 충전단자 필요 없어 디자인 강점
- 전기차: 3~4년 내 무선충전 보급 전망 <- 쉘컴, 자동차 무선충전 기술(Halo) 공개
- 자기유도방식 WPC vs. 자기공진방식 A4WP(PMA 통합)가 표준화 경쟁

◎ 전자기장 차폐 및 방열소재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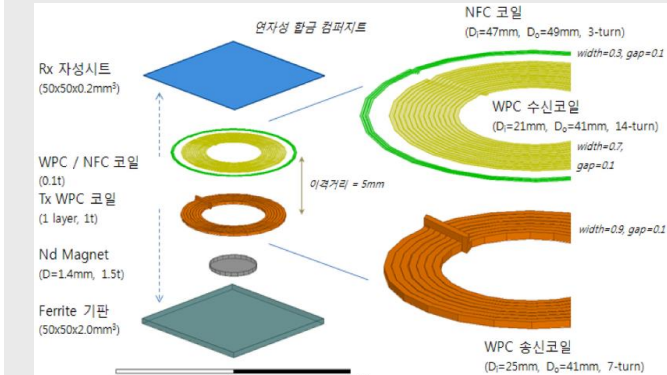
- 전자기장 차폐소재: Ni, Mn, Zn 복합 소재 가공해 제작
 - 무선충전모듈 내에서 불필요한 주파수 및 전자파 차단 기능
 - 전자파 차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1) 누설된 자기장이 금속 표면에서 맴돌아 전류 일으켜 열을 발생시키거나, 2) 전자기기 내 각종 신호처리 회로부에 전자기장 간섭 야기해 오작동 초래
- 방열소재 및 방열부품 채용 확대 예상
 - <- 무선충전 시 배터리 자체의 발열뿐만 아니라 충전 코일에서 손실된 전기에너지가 열로 발생
- 아모텍(페라이트 시트), 서원인텍(방열부자재) 등 수혜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및 무선충전 채용 비중



자료: Gartner, 키움증권 추정

무선충전모듈 분해도



자료: LG이노텍 부품연구소, 키움증권

생체인식 시장의 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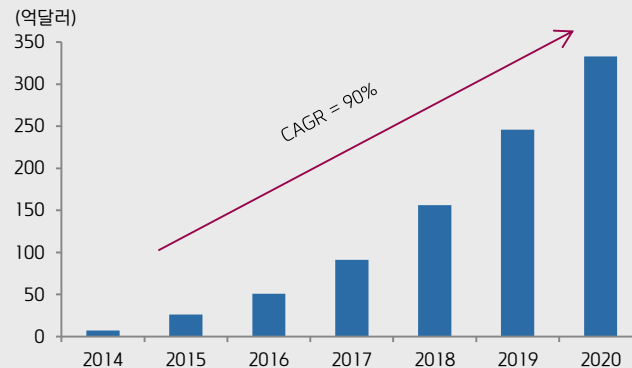
◎ 생체인식, 보안인증의 차세대 주역으로 부상

- 지문, 홍채, 손 모양, 얼굴, 정맥, 음성 등 개인의 고유한 신체적 정보를 추출해 정보보안 시스템에 활용하는 기술
- 지문인식은 성장 지속 : 삼성전자는 Synaptics와 협력해 지문인식 모듈화, 애플은 AuthenTec 인수해 지문인식 기술 탑재, 중화권 업체는 한국 및 대만 부품사에서 조달
- 스마트폰에 지문인식뿐만 아니라 홍채인식 탑재될 가능성 대두

◎ 홍채인식이 새로운 보안인증 대체 수단이 될 가능성

- 생후 1~2년간 빗살 무늬 형태로 변화하고, 이후 패턴 불변
- 홍채인식이 지문, 얼굴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임
 - FAR(잘못된 것을 맞다고 받아들이 확률)과 FRR(맞는 것을 잘못으로 판단할 확률)이 가장 낮음
- 삼성전자 하반기 신모델과 아이폰 7 이후 모델에 홍채인식 모듈 채용 가능성 거론
- 크루셜텍(지문인식), 파트론(생체인식 모듈) 등 수혜 예상

생체인식 시장 전망



자료 : Acuity Market Intelligence

생체인식 인식률 비교

	FAR (False Acceptance rate)	FRR (False Rejection rate)
얼굴 인식	0.35%	10.20%
지문 인식	0.01%	2.30%
홍채 인식	0.00%	0.15%

자료 : MITRE

IT 시각에서 바라 본 자동차 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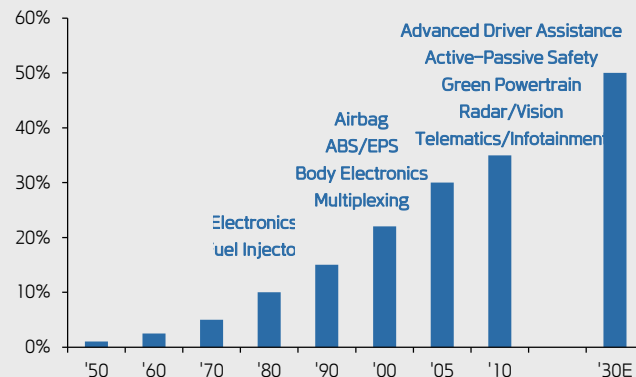
◎ 자동차 전장화 배경

- 자동차의 스마트화는 1) 인포테인먼트, 2) 커넥티드 카, 3) 자율주행차의 단계로 발전
- 스마트카: 많은 센서와 디스플레이 장치 보유하고서 인터넷 연결성 바탕으로 다양한 IT 서비스 가능한 새로운 IT 플랫폼
- 인포테인먼트: 고화질 대화면 디스플레이 탑재, 4G 텔레매틱스 확대 추세
- 커넥티드 카: 통신과 인터넷 바탕 연결성 중시, 스마트폰이 핵심 통신 허브 역할 수행, 지능형교통체계 및 V2X 기술과 연계
- 자율주행차: 2020년경 높은 수준(Level 3) 상용화 전망. Google의 앞선 행보 주목. 차량 가격, 인프라, 해킹, 법적 책임 이슈 등이 해결 과제. 미래 이동성 해법은 전기차-카셰어링-자율주행-무선충전 연계
- 주요국의 안전장치 의무 장착 규제 확대, 안전성 평가 강화 추세가 자동차 부품의 전장화 촉진
 -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는 친환경 차량 확산의 중요한 축매로 작용

◎ 전장 부품 및 업체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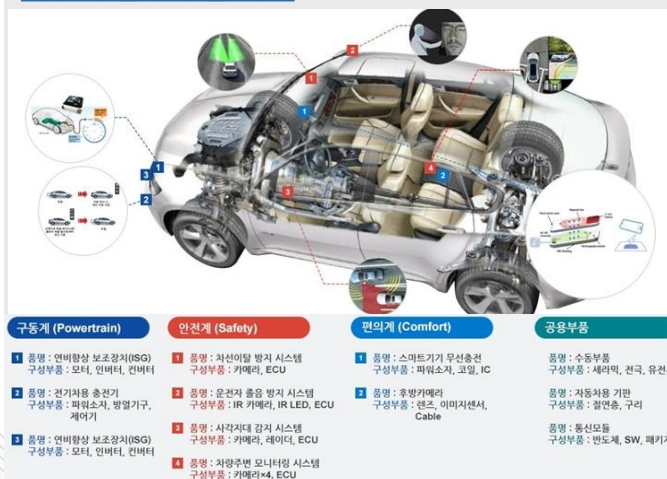
- IT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요 부품은 배터리, 센서, 반도체, 소형 모터, 카메라모듈, 통신모듈, 디스플레이, LED 램프, MLCC 등 수동소자, 터치패널, 무선충전모듈 등 → 국내 업체들은 센서, 반도체 등 핵심 전장품 역량 미흡
- 업체별로는 LG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 삼성SDI 등 행보 주목
 - LG전자가 가장 적극적, 실적 기여도 면에서는 LG이노텍 성과 가장 빨라

자동차 제조원가 중 전장 부품 비중



자료: Freescale

자동차 전장 부품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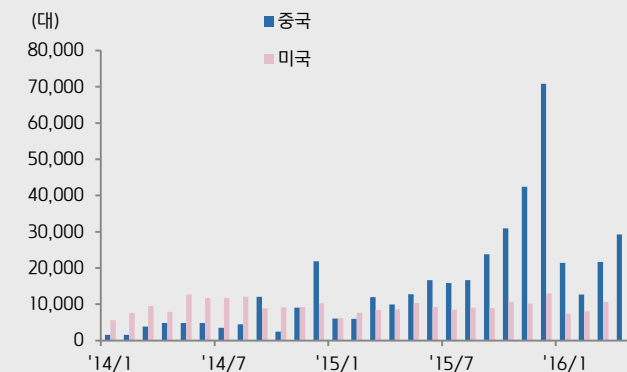
자료: 삼성전기

전기차, 중국에서 미국으로 성장 축 다원화

◎ 중국, 정부 주도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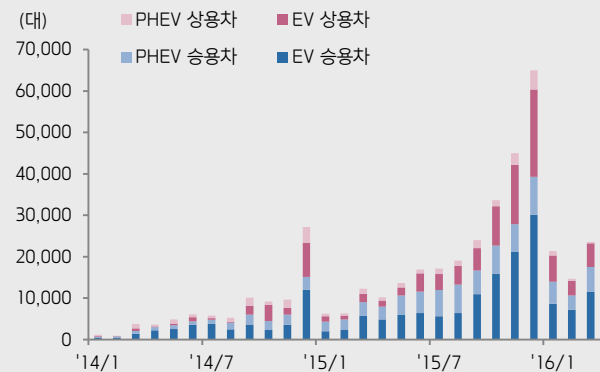
- 중국 15년 전기차 판매량 331,092대로 343% 증가
 - 미국 110,849대(YoY -5%)와 큰 격차로 1위 수요국 부상
 - Hybrid나 PHEV가 아닌 순수 EV 중심으로 시장 형성, EV 상용차 급속 증가 특징적
 - 고성장 배경: 최대 6만위안(EV) 보조금 지급, 차량구매세 등 세금감면, 북경 등 대도시 신차 등록 용이, 충전 인프라 확대 계획 등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맞물려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
- 16년 변화된 모습
 - 보조금 대상 차종 대폭 축소(3,412개 -> 247개), 전기버스 중심 불법 보조금 근절 추진
 - > 시장 정화(淨化) 과정에서 연초(1~2월) 판매량 부진 -> 3월 이후 회복세
 - 정부 입장: 단기 부작용 겪더라도 시장 질서 바로 잡아 경쟁력 제고, 기초 인프라 건설한 구축 통해 지속 성장 유도
- 전기차 보조금 단계적 축소 계획
 - 올해 기준 17~18년 -20% -> 19~20년 -40% -> 20년 이후 보조금 폐지
 -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 변경: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만 보조금 지급 vs. 삼원계(NCM) 배터리 제외

중국과 미국 전기차 판매량 추이



자료: EV Obsession,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중국 전기차 생산량 추이



자료: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전기차, Bolt EV vs. Model 3

◎ 미국, 민간 주도 성장

- 16년 들어 재차 성장률 확대, 올해 말부터 경쟁력 한층 강화된 모델 출시 예정
 - 매직 넘버 '200' 충족(1회 충전 주행거리 200마일, 배터리 가격 200달러/kWh), 합리적 가격 표방
- GM Chevrolet Bolt EV: 16년 말 출시 예정, 연간 판매 목표량 25,000~30,000대
 - 1회 충전으로 200마일(320km) 주행, 3만 4,000달러(보조금 포함 시 3만달러 이하)의 저렴한 가격 제시
 - 깔끔한 인테리어, IT 기술 활용한 편의성도 강점
 - LG전자: 구동모터 포함 핵심 부품 11종 공급
 - Bolt EV 제조원가의 50% 공급 → 5년간 2조원 프로젝트로 추정
- Tesla Model 3: 예약 판매량 1주일 만에 32만대, 17년 말 인도 예정
 - 선풍적 인기 비결: Tesla 특유의 파격적인 디자인, 1회 충전 215마일(346km) 주행거리, 제로백 6초 등 우수한 주행성능, 기본형 3만 5,000달러의 저렴한 가격, 상당한 수준의 자율주행(오토파일럿) 기능 등
- 주요국 전기차 보급 계획
 - 중국: 20년까지 신에너지차량 500만대 보급, 1,000억위안 지원 계획, 2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450만대 설치
 - 미국: 15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한도 세금 혜택 부여
 - EU(영, 독, 프): 20년까지 전기차 470만대 보급

Chevrolet Bolt EVModel 3

전기차 개발 전략

◎ 전기차 개발 전략

① 차량 가격: 배터리가 생산 원가 40~50% 차지

- 배터리 팩 가격(kWh): 13년 800달러 → 현재 400달러 → 18년 200달러로 하락해 수요 촉발 전망
- 셀 표준화, 소재 업체 다변화, 배터리 탑재량 증가, 규모의 경제로 인한 고정비 부담 감소 등을 통해 원가 절감 가능

② 주행거리: 현재 150km → 18년 300km 이상으로 확대

- 배터리 에너지 밀도 향상, 차체 경량화, 모터의 고효율화/소형화, 전력 변환/제어 장치의 고효율화 등 기술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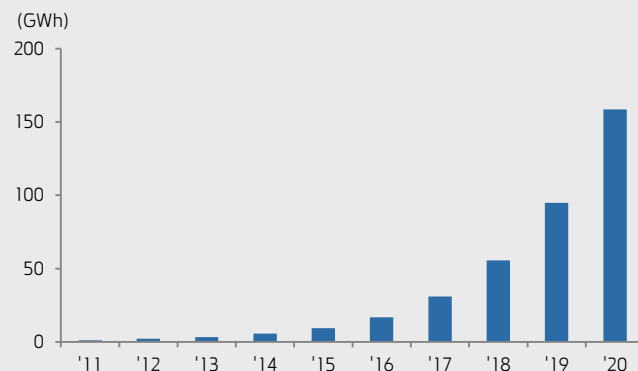
③ 충전시간: 현재 완속 6~8시간, 급속 15~30분 → 18년 완속 4~6시간, 급속 15분 이내

- 충전 인프라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충족, 완속 충전 인프라는 주로 심야전기 활용 수요 대응

◎ 배터리 경쟁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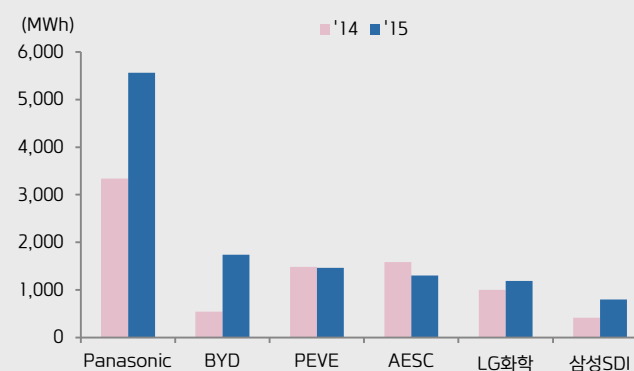
- 15년 15.5GWh(YoY 59%): Panasonic 36%, BYD 11%, PEVE 10%, AESC 8%, LG화학 8%, 삼성SDI 5% 순
 - 국가별 점유율 일본 64%, 중국 18%, 한국 18% 순 → 18년 한국 1위: 신규 공급처 최대 확보
- 전기차 배터리 시장: 15년 50억달러 → 20년 300억달러로 5년간 6배 성장(Lux Research)
 - 품질, 무게, 비용 등 기대치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는 Panasonic, LG화학, 삼성SDI 등 3사에 국한

자동차 배터리 시장 전망



자료: SNE Research

전기차 배터리 업체별 출하량



자료: SNE Research

TV, 패널 가격 약세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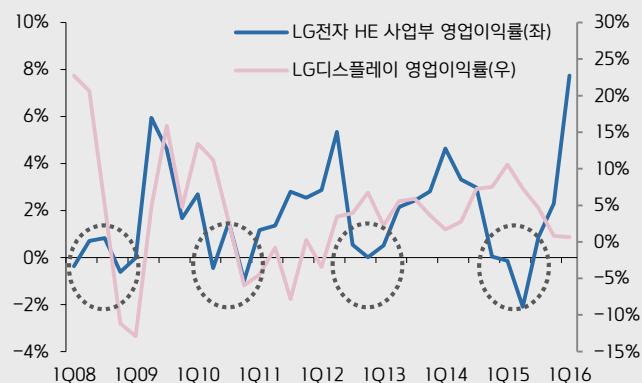
◎ TV 업체와 패널 업체 수익성 패턴

- 1) TV 수요 회복기에 TV 업체와 패널 업체 수익성 동반 회복
- 2) 패널 가격 강세 이어지면서 TV 업체 수익성이 먼저 하락 시작
- 3) TV 업체 수익성은 2~3년에 한번 꼴로 손익분기점 하회하는 수준까지 악화. 패널 가격 하락 압박으로 작용
- 4) 패널 가격이 TV 가격보다 빠르게 하락 → 패널 업체 수익성 악화되지만, TV 업체 수익성 반등
- 5) 일정 기간 후 TV 업체들이 패널 가격 반등 우려해 재고 비축에 나서고 패널 가격 상승하면서 패널 업체 수익성 회복
- 패널 업체 수익성 저점 시기는 TV 업체보다 1~3분기 정도 후행
 - 패널 업계 경쟁 상황과 공급 과잉폭에 따라 바닥 탈출 기간 상이 <- 패널 업계 감산이나 가동률 조정 수반

◎ TV 수익성 상반기 개선 후 하반기 둔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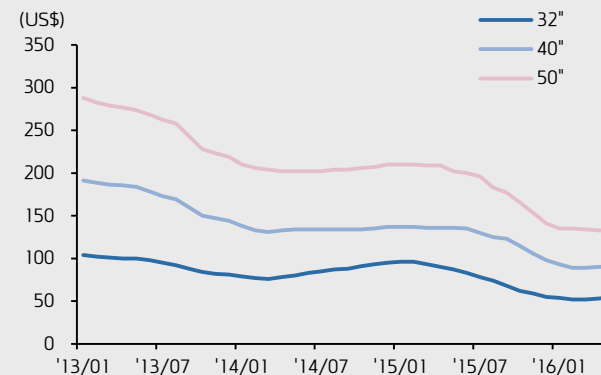
- TV 업체 수익성 적자 전환 후 4~5분기 동안 개선 추세 지속 패턴
 - LG전자 HE 사업부 수익성은 2Q15 바닥 → 패널 가격 동향 감안 시 상반기 개선 후 하반기 둔화 예상
- 14년 말 이후 신흥국 통화 약세 등 거시 경제 악화 관련해 원가 절감형 모델 출시, 플랫폼 축소 등 수익성 보존 대책 실행
- 작수년도로서 대형 스포츠 이벤트 예정 <- 하반기 수요 중 일부 상반기 선행 효과

LG전자 HE 사업부와 LG디스플레이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각 사

TV용 LCD 패널 가격 추이



자료: IHS

靜中動, 경쟁 강도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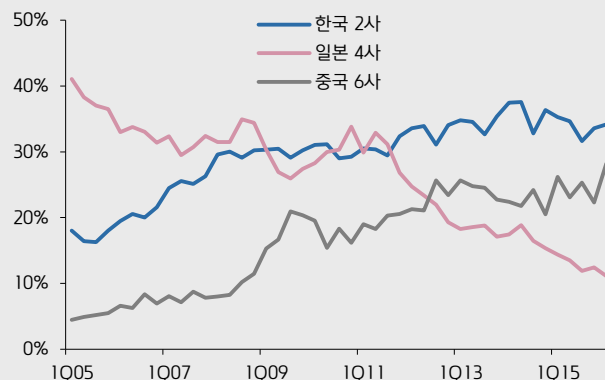
◎ UHD 및 대형화 추세에 제품 Mix 개선 기회 제공

- TV 수요는 부진: 15년 -4% → 16년 0%
 - 동유럽 등 신흥시장 수요 침체, 북미 등 선진시장 교체 수요 둔화
- UHD 비중: 14년 5% → 15년 14% → 16년 24%로 확대
 - 50" 이상 대형 사이즈 중 66% 차지, 중국 집중도 15년 47% → 16년 42%로 하락
- TV 평균 사이즈: 14년 38.6" → 15년 39.4" → 16년 40.8"로 1.5" 확대
 - 북미와 중국 교체 수요가 40" 이상 대형에 집중, UHD 확산도 대형화 자극
 - TV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들의 가격 수용성 커져 → 08년 32" TV 가격으로 지금은 50" TV 구매 가능

◎ 경쟁 구도는 '靜中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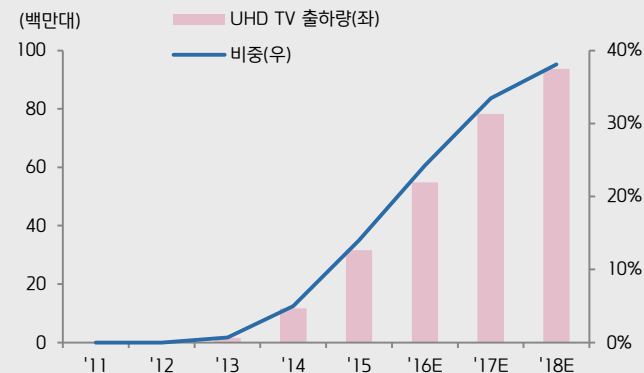
- 국내 업체: 점유율 확대보다 수익성 중시 전략 지향
- 일본 업체: 엔화 약세기에도 점유율 하락세 지속 <- 분사, 구조조정 등 Downsizing 전략 추진, 내수 위주 소극적 대응
 - Toshiba 존재감 미약, TV 자체 생산 중단/ Sharp TV 사업 포기 의사 피력/ Panasonic TV용 LCD 사업 철수
- 중국 업체: 중국 시장 성장 일단락, Hisense, TCL, Haier 등에 한해 해외 시장 성과

한·중·일 3국 TV 업체 경쟁 구도



자료: IHS

UHD TV 시장 전망



자료: IHS

OLED가 주는 기회

◎ 규모의 경제 유의미한 원년: 15년 33만대 → 16년 120만대로 4배 성장

- 2,500달러 이상 초프리미엄 TV 수요 300~400만대 <- OLED TV의 Target 시장, 초대형 65"가 새로운 주류로 부상
- 무한 명암비(완전한 블랙), 초박형 및 곡면 디자인, 무한대 시야각 장점 vs. 가격, 수명, Burn-in 현상 과제
 - 개화 지연 배경: UHD, 퀀텀닷 등 고화질 경쟁 솔루션 확산, 1위 TV 업체 소극적 전략, 높은 제조원가 및 신공정 시행착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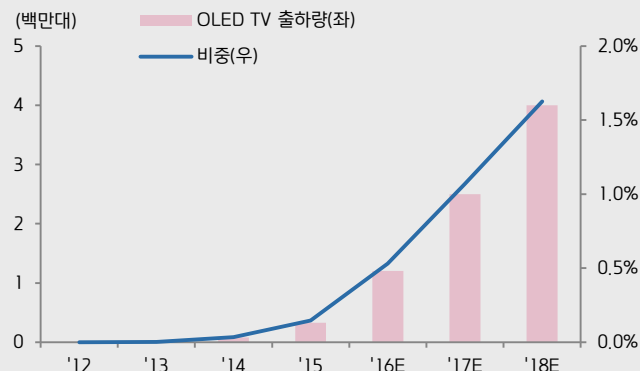
◎ 달라진 사업 환경

- 1) 패널 수율과 원가 구조 빠르게 향상: UHD도 골든 수율 도달
 - LCD 대비 가격 Premium(55" 기준) 2H15 1.5배 → 2H16 1.3배, 대중화 촉발 분기점
- 2) OLED TV 연합군 형성, 건전한 경쟁 통해 Trend 조성 가능
 - Skyworth, Changhong, Konka가 시장 참여, Panasonic, Hisense, Haier, Vestel 등도 참여 예고
- 3) 65"가 주요 사이즈로 부상: 비중 15년 12% → 16년 30~40%

◎ OLED의 사업자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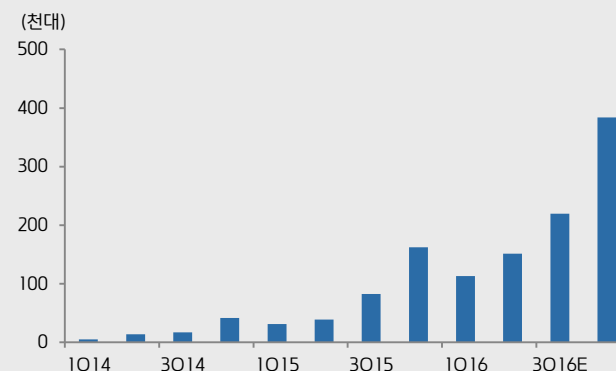
- 중국 업체들과 격차 유지, Premium 확보 가능. ① LCD 대비 공정 노하우 복잡(Layer 수 3~4배), ② 특허 등 높은 IP 장벽, ③ 독자적 장비 기술 필요. 시차적으로 투자하고 양산하기까지 최소 3년 소요
- 궁극적으로 LCD보다 낮은 제조원가 가능 <- 소형 OLED가 주는 교훈

OLED TV 시장 전망



자료: IHS

LG전자 OLED TV 출하량 전망



자료: HIS, 키움증권

가전, 역사적 최고 수익성

◎ 선진시장 수요 양호, 신흥시장은 침체

- 다른 IT Set와 차이점: 가격에 대한 수요 민감도 약한 편, 중국 업체발 경쟁 강도 약한 편, Blended ASP 지속 상승
- 16년 지역별 성장률: 북미 5~6%, 유럽/중동/아프리카 0~2%, 남미 -10%, 아시아 0% 예상
 - 북미: 주택 경기와 맞물려 수년간의 성장 사이클 전개 중
 - 유럽: 서유럽 회복세, 러시아 안정화 조짐
 -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침체 심각, 인플레이션과 환율 영향 부정적
 - 아시아: 중국 수요 불확실성 vs. 인도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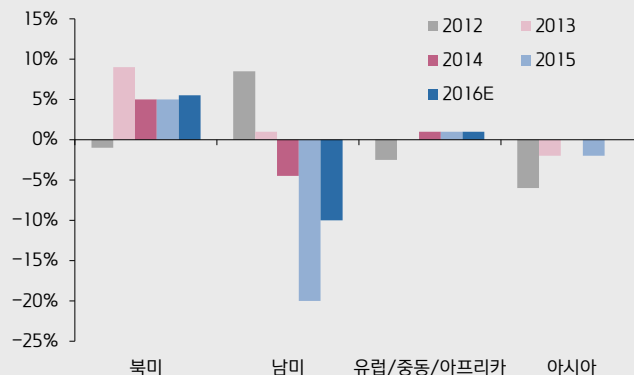
◎ LG전자 역사적 최고 성과 진행 중

- 대외적으로는 1) 원자재 가격 하락, 2) 선진국 Premium급 수요 양호, 3) 업체간 마케팅 경쟁 강도 완화
- 대내적으로는 1) 트윈워시 세탁기 등 Premium 제품 경쟁력 부각, 2) 플랫폼 통합화, 부품 공용화, 생산지 운영 최적화 등 원가구조 개선 노력 성과 구체화

◎ 원자재 가격 하락 우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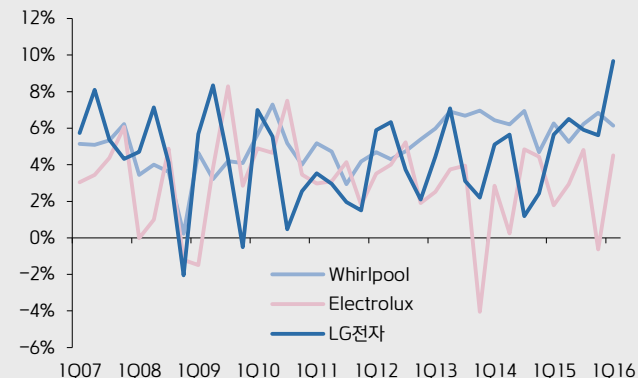
- 재료비 비중 30%로 주요 Set 중 가장 높은 편. 스테인, 레진,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시차를 두고 가전 원가에 반영, 16년 원가 구조 개선에 기여

지역별 가전 시장 성장률 추이 및 전망



자료: Whirlpool, 키움증권

주요 생활가전 업체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각 사

스마트에너지 시대 도래

◎ 신기후체제 출범, 주요국 과감한 에너지 정책 추진

- 미국: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8%로 증대, 당초 목표 대비 6%p 상향
- EU: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50억유로 지원, 영국, 독일, 프랑스는 20년까지 전기차 470만대 보급 계획
- 중국: 20년까지 태양광 발전 150GW, 풍력 250GW 구축하기로 계획 상향, 전기차 500만대 보급 및 전국 충전망 구축
- 한국: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 발표, 에너지 프로슈머, 저탄소 발전, 전기자동차, 친환경 공정 등 4대 분야 에너지 신산업 과제 추진 → 30년까지 100조원 시장 창출 목표

◎ 신기후체제 이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등 30년까지 12.3조달러 시장 창출 전망(IEA 보고서)

- 신재생에너지, ESS 등 핵심 분야 기술 향상에 따라 단가 대폭 하락 → 에너지 신산업 경제성 확보 시작
- 태양광 단가 11년 436원/kWh → 15년 174원, ESS 단가 13년 14.8억원/MWh → 15년 8.2억원

◎ LS 그룹 미래 경쟁력 부각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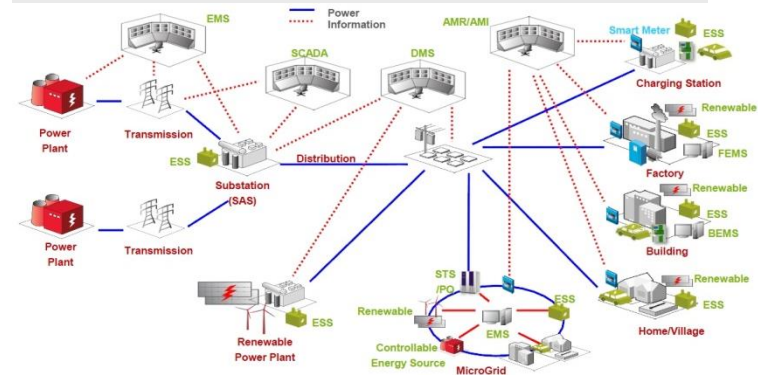
- 산전 부문: 스마트그리드, ESS, 태양광 등
- 전선 부문: 해저 케이블, HVDC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등

주요국 에너지 정책 방향

미국	중국
INDC ▶ 2005년 대비 26~28% 감축('25) 정책 ▶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8%('30) ▶ 전기차 100만대 보급(~'15)	INDC ▶ 2005년 대비 60~65% 감축(원단위) 정책 ▶ 태양광 100GW, 풍력 200GW 구축(~'20) ▶ 전기차 500만대 및 전국 충전망 구축(~'20)
EU	일본
INDC ▶ 1990년 대비 40% 감축 정책 ▶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50억 유로 지원 ▶ 전기차 470만대 보급(英, 獨, 佛 ~'20)	INDC ▶ 2013년 대비 26% 감축 정책 ▶ 태양광 발전 총 68GW 규모 승인 ▶ 스마트 미터 1,700만대 보급(~'1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S산전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자료: LS산전